

# 위령의날 셋째미사 화답송

시편 23(22), 1-3. 4. 5. 6



(후렴)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으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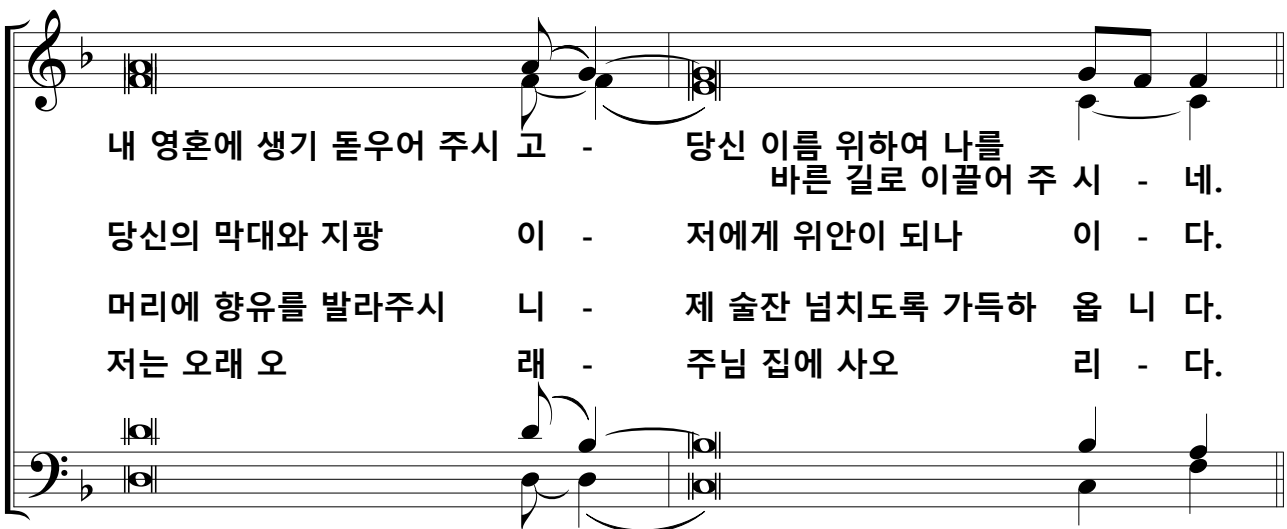


1.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으랴. -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 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-

2.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 도 - 당신 함께 계시오니  
두려울 것 없나이다. -

3. 원수들 보는 앞에 서 -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-

4. 제 한 평생 모든 날 에 -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 니 -



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-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 
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.

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-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.

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-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나이다.

저는 오래 오래 - 주님 집에 사오리다.